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 연구 - 조성 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

김춘실*

- I. 머리말
- II.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의 형식, 양식 특징
- III. 중국 및 삼국시대 불상과의 양식 비교 및 편년
- IV.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과의 형식 및 양식 비교를 통한 조성국 파악
- V. 맺음말

I. 머리말

청주시 내수읍 비중리에는 삼국시대 6세기작인 석조삼존불좌상과 석조여래입상, 그리고 시기가 조금 내려가는 석조광배 등 3구의 석불상들이 전한다.¹ 이 상들은 1979년에 비중리 마을 들어가는 초입의 작은 동산 주변에서 파손되어 흩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부터 고구려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상들로 알려져서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었다.² 그러나 이후 불상의 양식은 고구려 양식이 깊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나 조성시기를 6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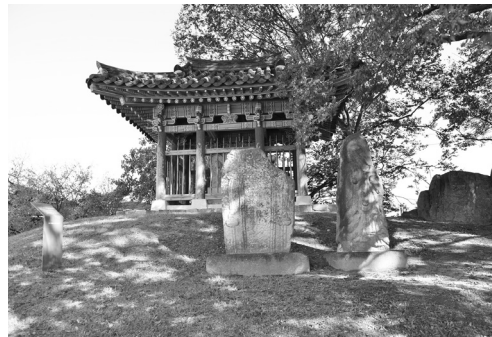
¹ 이 불상의 소재지가 이전에는 청원군에 속했으나 2014년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² 정영호, 「청원 비중리 삼존석불」, 박물관신문(국립중앙박물관, 1980.8월 1일자) 발견 당시 석조여래입상과 석조광배는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석조삼존불상은 파괴된채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세기 중반 내지는 후반경으로 편년하여, 조성 국가에 대해서는 6세기 청주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신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는 막연하게 삼국양식이 혼재된 상으로 보기도 하였다.³

이처럼 비중리사지 석불상들 중 삼존불상은 석불로는 규모가 큰 상으로, 좌협시보살상이 없는 상태이나 본존상과 우협시보살상, 그리고 광배, 대좌 등이 전하여 전체적인 양식을 추정할 수 있다. 시무의 여원인의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고 좌우에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있으며 대좌는 사자좌이고 광배에는 화불이 있는 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식을 보이는 삼국시대 석조삼존불좌상이다. 석조여래입상은 얼굴 부분만 파손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온전한데, 불신의 양감이 없고 대의 자락이 옆으로 뻗치는 표현으로 보아 역시 삼국시대 6세기 상으로 추정된다. 석조광배는 윗부분이 조금 파손된 상태이나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며 조성시기는 위의 두 상에 비해 조금 내려가는 통일신라기로 추정된다.

이들 불상이 발견된 비중리사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1991-1992년에 청원군의 의뢰로 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일광삼존불상의 조성시기는 600년경의 고구려 불상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초창 당시의 유구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단지 현재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언덕 위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작은 법당이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근처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과 토기편, 청자, 백자편이 출토되었다.⁴ 이로 보면 비중리사지 석불상들은 삼국시대에 조성된 이후 근세에 이르기 까지 비록 법당의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봉안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발굴 조사 이후 삼존불상 편들은 붙여져서 일광삼존불 형태로 동산 위에 봉안되었고, 이어서 이곳에 보호각이 설치되었다. 나머지 석조여래입상과 석조광배는 현재 보호각 앞에서 있는 상태이다(도 1).



도 1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 전경.

한편 역사학 및 고고학 연구에서도 비중리사지 석불상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³ 문명대, 「청원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1982), pp. 257-274(同著, 『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pp. 394-408에 재수록); 김춘실, 「삼국시대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고」, 『미술사연구』 4(1990), pp. 1-39.

⁴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청원 북일면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지표조사 및 간이발굴조사보고서」(청원군, 1991);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비중리일광삼존불 복원조사 및 원위치탐색조사보고서」(청원군, 1992).

할 수 있다. 먼저 이 상이 위치한 청주지역의 6세기 소속 국가의 변화와 연계하여 제작국을 신라, 또는 백제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고,⁵ 다시 고구려로 파악해 보는 내용도 제시되었다.⁶ 특히 조성국을 신라로 파악하는 의견은 이 불상의 양식 파악 보다는 6세기 이후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신라의 북진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으로, 이 상을 고구려의 남진의 흔적이 아닌 신라의 북진의 결과물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비중리 불상은 6세기 이 지역에서 삼국의 대치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 자료일 뿐 아니라, 만약 이 불상이 신라 불상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석불의 기원 및 신라 불교조각사를 새롭게 써야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들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및 고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불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상의 편년이나 조성국에 대해 더 이상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그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는 먼저 이 상들이 많이 파손되고 마멸된 상태여서 양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며, 또한 삼국시대 6세기 경에 청주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국적의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막중하므로 좀 더 세밀히 연구를 진행하여 양식이나 조성국 모두에서 수궁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초가 되는 연구는 역시 일차 자료인 비중리 석불상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양식고찰과 편년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은 관심과 맞물려 최근에 비중리사지 석불상과 매우 인근한 곳에서 또 다른 삼국시대 불적이 확인된 점도 이와 같은 연구를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비중리와 바로 인접한 지역인 증평군 남하리사지에서 전하는 마애불상으로(도 2), 이 불적은 그동안 고려시대 유적으로 파악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⁷ 그러나 필자가 최근



도 2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 전경.

⁵ 서영일, 「6세기 신라의 북진로와 청원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사학지』 30(1997), pp. 89-115에서는 신라 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서경, 2001) pp. 13-56에서는 삼국의 혼합 속에 백제상일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⁶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2006), pp. 302-303.

⁷ 충청대학교 박물관, 『증평 남하리사지 지표조사 보고서』(충청북도 증평출장소, 1994).

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마애불은 삼국시대 7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신라 불상으로 파악된다. 이와같이 비중리 인근 지역에서 또다른 삼국시대 불적이 발견된 점은 그동안 비중리 석불상만을 중심으로 언급되던 삼국시대 청주지역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먼저 비중리사지 석불상들의 도상 및 조각양식상 특징을 중국 및 삼국시대 불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명료히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과의 도상 및 양식 비교고찰을 통해서 청주지역의 삼국시대 상황과 관련된 불적에 대해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비중리 석조불상들의 조성시기와 조성 국가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를 도출해 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삼국시대 6세기 불교조각사 및 청주지역의 역사적 상황도 보다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의 형식, 양식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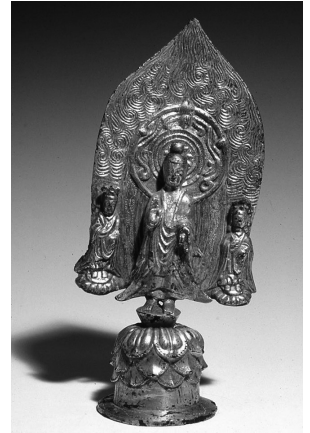
1. 석조삼존불좌상

삼국시대 6세기에 유행한 일광삼존불상으로 커다란 광배에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고 좌우에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있는 상이다(도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삼국시대 초기의 일광삼존불상들은 간송박물관소장 癸未銘 금동삼존불상 등과 같이 小金銅佛像



도 3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좌상의 전체 모습, 전체 높이 170cm, 너비 206cm(전체 복원 너비는 260cm 추정)

들 뿐인데(도 4), 이 상은 하나의 돌로 조각된 석불이면서 그 규모도 전체 높이 170cm, 너비 206cm(삼존불상 전체 복원 너비는 260cm 추정)인 규모가 큰 상이란 점이 특징이다. 상의 옆면도 매우 두터워서 조각이 고부조이고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석불의 분위기를 잘 볼 수 있다(도 5). 상의 뒷면은 편평하고 앞면에 광배를 배경으로 본존상과 보살상을 고부조로 조각하였다. 삼존상의 형식 및 양식 특징을 자세히 밝히기 위하여 본존상, 대좌, 거신광배, 협시보살상순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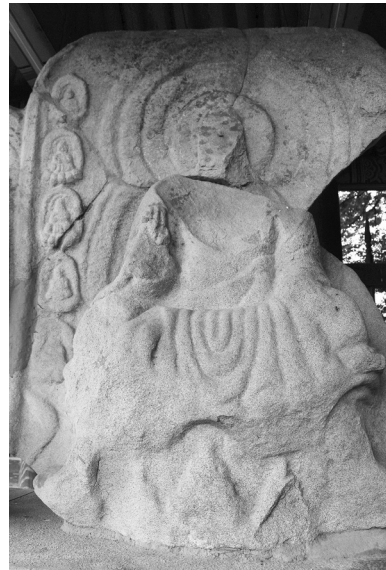
도 4 癸未銘 금동삼존불상, 563년, 간송박물관 소장, 17.5cm

1) 본존상

삼국시대 금동일광삼존불상의 본존상은 대부분 입불인데 비해서 이 삼존불의 본존상은 좌불이다. 머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좁고 긴 얼굴의 윤곽을 보여서 6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도 6). 가운데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보면 별도의 불두를 붙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깨는 둥글고 상반신이 크게 표현되어 장중한 자세를 보인다. 가슴 부분이 깨어져서 대의를 입은 방식은 잘 알 수 없으나, 양 팔에 대의 주름이 있어 통견으로 입은 듯 하고 왼쪽 팔뚝 위에는 넘겨지는 대의 자락 표



도 5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상의 측면 모습



도 6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상의 본존상

현이 보인다. 오른손은 큰 편으로 들어서 시무외인을 취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아 여원인을 취한 듯한데 파손되었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좌우로 넓는데 측면에서 보면 폭이 좁아서 마에불 같은 표현을 보인다. 대의자락이 다리 앞면으로 늘어져 발이 보이지 않는데, 가운데의 둥근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의 수직 옷주름이 짧게 늘어서 있다. 양 무릎의 둥근 윤곽이 보이고, 그 아래로 앉아 있는 대좌 윗단의 각이 지고 넓은 부분이 드러나 보인다. 특히 고부조의 상이어서 양 측면에서 보면 팔의 대의 주름과 대좌의 측면 모습을 보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리 가운데로 늘어지는 둥근 옷주름을 둔중한 층단형으로 조각하여서 매우 두텁고 묵직한 인상을 주는데, 이와같은 옷주름 양식은 延嘉7年銘 금동불입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보다 시기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6세기 전반의 북위양식 상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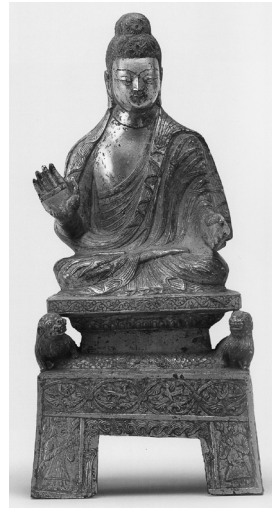
2) 대좌

본존상이 앉은 대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윗부분이 넓은 사각대좌이다. 그리고 대의자락이 대좌 상단으로만 짧게 늘어져서 아래 쪽으로 높은 중대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드러나 보인다. 하대석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고, 가운데 부분에 조각 흔적과 양옆으로 사자가 안쪽을 향해 측면으로 앉은 모습이 보인다. 이로 보면 본존상이 앉은 대좌는 중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5~6세기 남북조 시기에 유행한 須弥座의 獅子座 형식을 따른 것을 알 수 있다(도 8).⁸ 가운데의 조각 모습이 삼존상 처럼 보이는 하나 중국 불상들의 예로 보면 가운데는 향로이고 좌우는 공양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수미좌의 사자좌 형식은 인도식의 사각대좌의 사자좌가 북위 초기에 중국식으로 바뀐 형식으로,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龍門石窟 賓陽中洞 본존상의 예처럼 대의자락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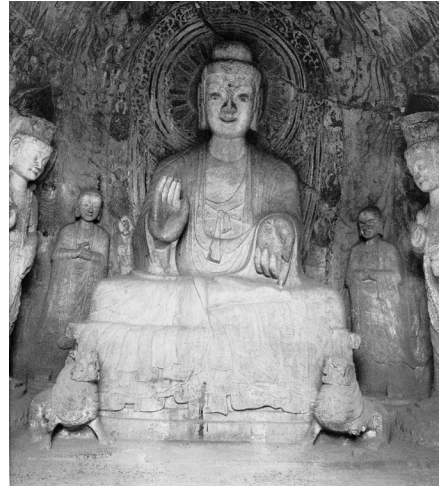
도 7 延嘉7年銘 금동여래입상, 539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3cm



도 8 금동여래좌상, 5C 후반, 1977년 北京市 延慶縣 宗家營 出土, 북경시 문물 연구소

⁸ 逸見梅榮, 『佛像の形式』(東 出版, 1975. 3쇄), pp. 169-170. 대좌 형태에 의해 宣字座로 부르기도 한다.

좌 앞면을 거의 덮어서 늘어지는 상현좌의 사자좌로 진전된다(도 9).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 독섬출토 금동불좌상은 가장 이른 형태인 인도식 사자좌의 유일한 예이고(도 10), 다음 중국식 수미좌의 사자좌 형식의 불좌상은 이 비중리 불상 뿐이다. 한편 도판만 전하는 고구려 불상인 傳黃州출토 석조여래좌상에서도 상단과 하단이 드러난 수미좌를 볼 수 있지만, 이 상의 대좌는 옷자락이 대좌로 길게 늘어지고 향로나 사자 표현이 없어서 상현좌에 가깝다(도 11).⁹ 그런데 중국은 금동상의 경우 이러한 대좌들 밑에 다시 寶基가 붙은 예가 많은데, 석불의 경우나 우리나라 삼국시대 상들에서는 표현의 어려움 때문인지 대체로 보류는 없다.¹⁰



도 9 龍門石窟 賓陽中洞 본존상, 북위 523년

한편 고구려 5세기 후반의 고분벽화인 輯安 長川里 1호분 前室東側 받침천정에 보이는 禮佛圖 중 본존상에서도 수미좌의 사자좌를 볼 수 있다(도 12). 이 본존상의 수미좌는 넓은 상대석과 하대석이 모두 표현된 완벽한 형식으로 앞면에 향로가 단독으로 그려졌고 좌우에는 사자가 박



도 10 독섬출토 금동여래좌상, 5세기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9cm



도 11 전黃州 출토 석조여래좌상, 6세기



도 12 중국 집안 장천리 1호분 前室 東壁 예불도 중 본존상

⁹ 梅原末治·藤田亮策 編, 『朝鮮古文化綜鑑』 4권(고구려편) 도 190. 황수영, 「삼국시대의 석불」, 『국보』 4, 석불(예경산업사, 1985), p. 165; 진홍섭, 『한국의 불상』(일지사, 1978), p. 186. 이 불상은 일제시대에 평양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하고, 평양 출토설도 언급하고 있다.

¹⁰ 逸見梅榮, 앞의 책, pp. 167-169. 이 부분도 형태에 의해 臺脚으로 부르기도 한다.

을 보며 앉아 있다.¹¹ 반면 백제와 신라의 불상 중에서는 수미좌의 사자좌 상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시기가 이른 예도 대부분 상면좌의 상이다. 이로 보면 수미좌의 사자좌 형식은 중국 북위대 초기인 5~6세기 양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우 이른 시기의 대좌 형식임을 알 수 있고, 특히 고구려와 깊게 연관된 대좌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거신 광배

일반적 일광삼존불상에서 본존불과 협시보살이 한 광배 안에 함께 조각되는 것과 달리, 이 상에서는 커다란 거신 광배가 본존상만을 둘러싸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광배의 왼쪽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주형광배로 생각되며 윗부분을 수평으로 다듬어서 변형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가 원돌의 제약 때문인지 또는 본존상이 좌불인 것을 감안하여 변형된 것인지 모르나,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구도상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옆으로 다시 원형 두광이 있는 협시보살상이 붙어 있어서 전체 광배의 외관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배의 형태를 조각수법이 미숙한 것으로 생각한 바도 있는데,¹² 일본의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 같은 규모가 큰 금동삼존불상과 비교하여 다시 관찰해 보면(도 13), 비중리 삼존상은 독립된 보살상이 협시하는 규모가 큰 일광삼존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삼국시대의 소형 금동삼존불상의 경우 협시보살상이 광배내에 부조된 예가 대부분이어서 이와 비교하여 비중리 상의 광배 표현을 미숙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다시 살펴보면 비중리 상은 독립된 협시상이 있는 입체적인 삼존상을 하나의 돌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형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비중리 삼존상이 모본으로 했던 상은 소규모의 금동삼존상이 아니라 사찰에 봉안되



도 13 法隆寺 금당 금동석가삼존상, 飛鳥時代 623년

¹¹ 김리나, 「고구려 불교조각양식의 전개와 중국 불교조각」,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1996), pp. 81-83(同著, 『한국고대 불교조각 비교연구』, 문예출판사, 2003, pp. 64-69에 재수록)에서는 장천리 1호분 예불도에 보이는 보살상도 매우 이른 타입의 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¹² 김춘실, 앞의 논문, pp. 8-10.



도 14 북위 熙平3年銘 금동이불
병좌상, 518년,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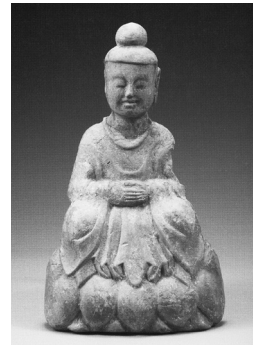
도 15 충주출토 建興5年銘 금동광
배, 536년 또는 596년, 국립
청주박물관 소장, 12.4cm

있던 대형의 금동삼존불상이 아
니었나 생각된다.¹³

거신 광배 내에는 본존상 주
위로 굽은 3중의 동심원만으로 두
광과 신광을 표현하였다. 그 외곽
좌우로 화불이 5구씩 조식되었는
데, 현재 우측의 5구는 완전하나
좌측은 파손되어 위쪽 1구만 남
아 있다. 두광이나 신광에 연화문
이나 당초문의 장식이 없고 그 외
곽으로 화염문도 없는 매우 질박

한 형태의 광배이다. 또한 화불도 일반적으로는 거신광의 윗쪽으로 3구 또는 7구 묘사되는데, 이
곳에서는 좌우 측면으로 5구씩 배치되어서 광배 형태에 맞추어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광배
아래부분은 대좌에 직접 연결되며 화불 아래로 대좌에 앉은 사자의 위로 올려진 꼬리가 부조되
어 있다. 이처럼 동심원만으로 둘러진 두광과 신광의 형태는 중국 북위대 불상 중에서도 특히 이
른 시기의 특징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 기메박물관소장 北魏 熙平3年銘 금동이불병좌상(518년)
의 광배와 연결되고(도 14),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는 고구려의 6세기 불상인 충주출토 建興5年銘
금동광배와 비교된다(도 15).

한편 화불은 소금동불의 경우 보통 간단히 표현되는데, 이 상
에서는 매우 자세히 표현된 점이 특이하고 양식 고찰 및 편년에 도움
을 준다. 선정인 상의 자세가 완연하여 두 손을 앞에 모은 수인 뿐 아
니라 무릎 부분의 옷주름, 그리고 그 밑으로 매우 볼륨있는 단판 연
화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화불 주위에는 얇은 음각선의 두
광과 신광이 있고, 다시 테두리가 굽은 거신광이 감싸고 있어서 마치
갑실 안에 앉아 있는 독존상 처럼 보인다. 이와같은 선정인 여래좌상
은 6세기작인 평양 원오리출토 소조여래좌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며, 따라서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 16).



도 16 평양 원오리출토
소조여래좌상, 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¹³ 중국 북위대 석불상 중에서 비중리 삼존상처럼 보살상이 광배 옆에 붙어서 조각된 예는 매우 드물지만 일본 根津
美術館 소장의 석불상이 있다(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吉村弘文館, 1995, 도157).

4) 우협시보살상

우협시보살상은 본존상의 광배 테두리 밖에서 원형 두광의 한쪽이 조금 가려진 형태로 붙어서 조각되어 있다(도 17). 따라서 원형 두광의 반대쪽 등근 윤곽은 그대로 표현되고 그 아래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치마 아래로 결실된 빈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발목 이하의 독립된 대좌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같은 일광삼존상의 형태는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원각의 보살상이 협시하는 입체적인 일광삼존상을 하나의 돌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오는 형태로 추정된다.

보살상의 얼굴 윗부분이 파손되어 상호를 알 수 없으나 뺨 아래로 등근 양감이 보인다. 보관도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얼굴 옆으로 보발과 관피의 뺨침이 있다. 불신은 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옷자락과 장신구가 번잡한데 역시 고식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목걸이는 굵은 편으로 가운데에 구슬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사선으로 입은 내의, 어깨에 붙은 커다란 등근 장식, 그리고 X자형 천의와 폭이 넓은 주름진 치마 등에서 6세기 북위 내지는 동위대까지 이어지는 보살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불신 측면에 양 팔목으로 넘겨진 천의자락이 번잡하게 뺨치면서 늘어지고 있는 점도 전형적인 이 시기 보살상의 특징이다. 특히 폭 넓은 주름치마의 형상은 고구려 원오리 보살상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6세기 보살상의 형식 및 양식을 규정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그동안 삼국시대 6세기 보살상에서는 볼 수 없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굵은 목걸이의 가운데에 작은 구슬 장식이 붙은 표현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그 형식 특징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는데, 중국상을 보면 북위 熙平3年銘 금동보살입상(518년) 같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으로 올라가는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식 특징임을 알 수 있다(도 18). 이후 용문석굴 고태동(505년)이나 빈양 중동(523년)의 보살상에서 그러한 목걸이를 볼 수 있고(도 19), 그 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동위대 보살상에서는 구슬장식이 없어진다.



도 17 청주 비증리사지 석조삼존불상의 우협시보살상

한편 양손은 파손이 심해 수인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오른손은 시무외인 처럼 들었고, 아래로 내린 왼손에서 확인되는 바는 밑부분이 입체감 있게 둥근 것으로 보아 정병과 같은 지물을 들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중국 보살상에서 확인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구슬 달린 목걸이 표현이 있는 보살상 등에서 정병을 든 상이 다수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6세기 보살상 중에서는 아직 그러한 예가 발견된 바 없고, 이 역시 중국 상에서도 고식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의 둥근 두광은 외곽을 굽은 테두리를 둘러고 내부에는 다른 장식 문양 없이 삼중원만 둘러다. 그런데 삼존상의 뒷면을 보면 다른 곳은 아무런 조각이 없는데 보살상의 두광 부분에만 마치 투시된 것처럼 앞면과 같이 본존상의 광배 윤곽 일부와 3중의 선이 새겨져 있어서 특이하다(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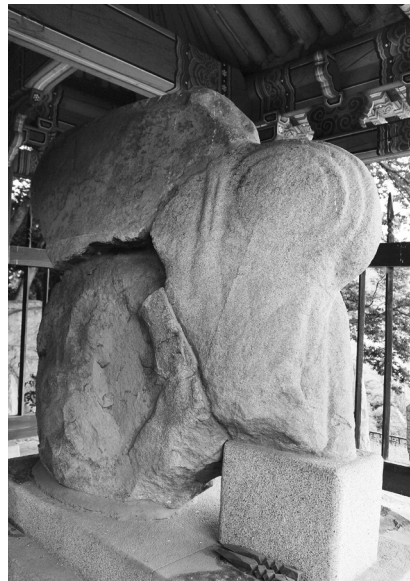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비중리의 석조삼존불상은 불, 보살상 그리고 대좌, 광배의 모든 세부적인 형식이나 양식면에서 중국의 5세기 말 부터 6세기 전반 상들과 연결되는 고식 특징들을 다수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북위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 불상들과 매우 친연성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8 북위 熙平3年銘
금동보살입상, 518년,
일본 香川 개인소장



도 19 용문석굴 빈양중동 남벽 삼존불상, 북위 523년



도 20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상의 뒷면 모습



도 21 청주 비증리사지 석조여래입상, 높이 180cm



도 22 청주 비증리사지 석조광배, 높이 150cm

2.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밖에 서있는 독존 형태의 여래입상으로 규모는 높이180cm, 밑너비69cm이다(도 21). 앞면이 좁고 옆면이 더 넓은 괴체형의 돌의 앞면에 만 공간을 가득 채워서 고부조로 조각되었다. 얼굴 부분이 파손된 상태이고 발과 대좌는 결실되었으나 불신은 온전하여서 양식 고찰이 가능하다.

등근 두광 앞의 공간이 깊은 것으로 보아 머리 부분을 거의 원각에 가깝게 고부조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파손된 머리 부분의 윤곽이 좁고 길쭉한 것이나, 두광이 단순히 굽은 테두리만 둘러진 표현 등은 앞에서 살펴본 석조삼존불상과 비슷하다.

불신은 어깨가 좁은 편이고 몸 전체에 두터운 대의자락이 늘어져서 굴곡을 전혀 볼 수 없다. 통견의 대의를 목 가까이 까지 올려 입고, 커다란 두손을 거의 어깨 높이 까지 들어 시무외 여원인을 취하여서 가슴 부분이 거의 표현되지 못했다. 또한 양팔에 의해 둘러진 대의자락이 풍성하게 옆으로 뻗치고 있고, 배부분에 좁은 V형에 가까운 주름이 둔중한 층단형으로 늘여지고 있는 표현 등은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539) 같은 6세기 전반 불상과 비교되는 특징이다(도 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조삼존불좌상 보다는 조각이 정교한 편이 아니고 도상면에서도 약간 뒤인 전형적인 6세기 전반 여래입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상이다. 따라서 이 상은 삼존불좌상 보다는 조금 뒤에 조성된 상이 아니가 생각된다.

3. 석조광배

윗부분이 조금 파손된 상태이나 나머지 부분은 온전한데, 앞의 두 불상의 투박한 형태와는 다른 상이다(도 22). 규모는 높이 150cm, 폭 108cm, 두께 10cm이다. 두께가 얇게 다듬어진 판석형의 돌로 이루어진 광배로, 앞면에만 얇은 부조로 두광과 신광의 테주리 선, 그리고 화불을 간소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광은 원형이고 신광이 길쭉한 것으로 보아 단독 불입상의 광배로 추정된다. 광배의 조각수법이 앞의 두 불상에 비해 정제된 특징을 보여서 조성시기는 보다 내려가는 통일신라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의 두 불상 보다는 후대에 봉안되었던 상의 광배임을 알 수 있다.

Ⅲ. 중국 및 삼국시대 불상과의 양식 비교 및 편년

비중리에서 전하는 석조삼존불좌상과 석조여래입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모두 6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이는 상들이다. 그 중에서도 삼존불상은 불, 보살상의 표현이나 대좌, 그리고 광배의 형식이나 양식 면에서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희귀한 5세기 말 내지는 6세기 전반의 고식 특징을 보이고, 특히 복위 내지는 고구려의 초기 불상들과 깊은 연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의 고찰은 불상의 세부 특징을 제각기 살펴본 것이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편년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비중리 석불상들의 세부 특징을 종합하여 전체 모습으로서 조성시기 및 조성국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보다 넓게 중국 및 삼국시대 불상들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6세기의 중국이나 삼국시대 불상 중에는 이와같은 일광삼존불이면서 명문이 있는 상들이 다수 있어서 이러한 종합적인 편년 고찰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불상과의 비교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좌상을 중국상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상의 편년에서 먼저 주목되는 바는 이 상이 시무의 여원인의 좌불을 본존상으로 하는 일광삼존불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존상의 대좌가 중국의 5세기 불상에서 유행한 수미좌의 사자좌이어서, 이 상의 편년을 5세기 말 정도로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본존상이 시무의 여원인인 일광삼존불상은 조성시기를 일단 6세기로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위

전기인 5세기의 수미좌의 사자좌 여래좌상은 대부분 독존이면서 선정인이나 시무외 여원인을 취하고 있고, 착의 형식은 인도풍이어서 대의자락이 대좌에 전혀 늘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도 8).

그리고 북위 후기인 6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좌상 내지는 여래입상을 본존상으로 하고 양 옆에 보살상이 협시하는 일광삼존상이 보다 유행을 하게 된다. 특히 용문석굴 빈양중동 본존불좌상을 보면 대좌는 좀 더 漢化가 진행되어서 대의 자락이 대좌 앞으로 늘어서는 상현좌의 사자좌로 바뀌게 된다(도 9). 상현좌는 漢化의 대표적 특징중의 하나로 南朝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¹⁴ 이와같이 시무외 여원인의 불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는 일광삼존불상은 인도 불상 양식의 영향을 거의 벗어나면서 유행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나름의 한화 과정이 더욱 진전된 상으로 본존상의 착의법도 대의 앞자락이 많이 드러나는 중국식 착의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비중리 석조삼존상은 일광삼존불상이면서도 본존상의 옷자락이 대좌에 늘어지지 않은 수미좌의 사자좌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5세기 북위 불상의 특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6세기 전반의 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협시보살상의 경우는 현재 우협시보살상만 남아 있어서 좌, 우의 대칭적인 특징은 알 수 없지만, 이 상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광삼존상에서 보살상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협시보살상은 전형적인 6세기의 보살상 양식을 보이는데, 얼굴 옆으로 보발과 관피의 뻗침이 있고, 몸의 굴곡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굽은 목걸이와 어깨에 붙은 커다란 둥근 장식, 그리고 X자형 천의와 폭이 넓은 주름진 치마 등이다. 이와같은 표현은 6세기중엽 이후의 東魏代 보살상이나 우리나라 삼국시대 보살상들에서도 볼 수 있어서 정확한 편년이 어려운 감이 있지만, 이들 후기 상들은 몸의 양감이 증가하고 옷주름도 얇게 거의 線刻에 가깝게 표현된다. 이에 비해 비중리 보살상의 조각수법은 깊이감 있는 묵중한 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고식인 북위 양식과 연관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비중리 보살상에는 보다 시기가 올라가는 고식의 표현이 있다. 즉 구슬 장식이 붙은 목걸이와 정병을 들은 수인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그동안 비중리 석조삼존상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슬장식 목걸이는 熙平3년명 금동보살입상(518년) 뿐 아니라 龍門石窟 古陽洞이나 賓陽中洞의 보살상 같은 6세기 전반의 상들과 널리 연결되는 고식 특징이다. 그리

¹⁴ 四川博物院 所藏 南齊永明元年銘 석조여래좌상(483년)은 초기 예이다(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고대불교 조각대전』, 2015, 도 46 참조). 한편 石松日奈子, 『龍門古陽洞初期造像における中國化の問題』,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Brüke, 2005), pp. 257-268에서는 상현좌 형식이 낙양 천도 이후 고양동 석굴을 시작으로 북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¹⁵ 四川博物院 成都文物考古研究所·四川大學 博物館 編, 『四川出土 南朝佛像造像』(中華書局, 2013), 도판 30-1 참조.

고 정병을 들은 수인 또한 용문석굴 보살상들에서도 보이고, 山東省 龍興寺址出土 북위 太昌元年銘 석조삼존불상(532년)의 좌협시보살상(도 23), 그리고 南朝 상으로 四川省 成都出土 南齊 永明8年銘 석상(490년)이나 梁普通4年銘 佛碑像(523년)에서도 보인다.¹⁵ 이 상들의 경우 좌협시보살상이 정병을 들고 있고 우협시 보살상은 하트형 지물을 들고 있다. 이로 보면 6세기 전반에 좌, 우 보살상의 지물이 하트모양과 정병이 짝을 이루는 삼존상이 조성되었으며, 따라서 정병을 들은 수인 또한 매우 이른 시기 보살상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6세기 불상 중에서는 하트형 지물을 들은 군수리출토 금동보살입상 1점 외에 정병을 들은 보살상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병을 들은 수인이나 구슬장식의 목걸이 표현은 상의 조성시기를 올려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도 23 산동성 용흥사지출토 북위 太昌元年銘 석조삼존불상, 532년, 산동성 청주박물관소장

한편 삼존상의 광배는 중국 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주형광배의 윗부분이 잘린 형태이고 화염문 의장도 없으며 화불도 좌우로 5구씩 배치되고, 또한 원형 두광의 협시보살상은 따로 옆에 부착되어 있어서 의도적인 변화 내지는 토착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둥근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두, 신광의 의장 역시 산동성 용흥사지출토 북위 太昌元年銘 석조삼존불상(532년) 같은 북위 6세기 전반의 상들에서 다수 볼 수 있는 특징이다(도 23).

다음 비중리 석불상의 또 다른 예인 석조여래입상의 경우는 기둥같은 돌의 좁은 앞면에 세부가 축약되어 표현되고 대좌도 없어져서 석조삼존불상에 비해 중국의 상들과 직접 비교하기가 다소 어렵다. 그러나 옷자락이 깊이감 있는 층단형의 주름으로 두텁고 또한 옆으로 많이 뻗치고 있는 특징은 산동성 諸城이나 龍興寺址에서 출토된 북위양식 석불상들과 비교되는 고식 특징이다.¹⁶

¹⁶ 青州市博物館 編, 『龍興寺』(山東美術出版社, 1999), 도 10 및 山口縣立萩美術館·浦上記念館 特別展, 『佛教美術の黎明, 山東省 石佛展』(2008), 도 4 참조.

이상의 보다 전체적인 형태로서 중국상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도, 비중리사지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의 석불상 2구는 전체 도상과 양식 모든 면에서 북위 6세기 전반으로 올라가는 고식 불상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조성된 상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위대 어느 지역의 상들과 깊은 연관을 보이면서도 관심이 가는데, 그동안 삼국시대 불상과 깊은 연관을 보이는 점이 지적되었던 산동성지역 불상들과는 그다지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앞서의 비교 고찰에서 부분적으로는 산동성 불상들과 비교한 예가 있지만, 전체 좌불을 본존상으로 하는 일광삼존불이라는 형식면에서 볼 때 산동성의 북위대 일광삼존상은 석불이건 금동불이건 입불의 일광삼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비중리 삼존상의 모델이 되었던 상은 중국의 河南省이나 山西省 같은 지역의 중앙양식을 취한 일광삼존상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2. 삼국시대 불상과의 비교

다음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6세기 일광삼존불상들과도 비교해서 앞에서의 편년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삼국시대 일광삼존불상들은 대부분 본존상이 좌불 보다 입불이 많다. 따라서 이 상들과는 대좌 양식은 비교해 보기 어렵고, 불, 보살상, 광배 등의 전체적인 형식이나 조각양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일광삼존불 중에는 명문이 있어 편년에 기준이 되는 상이 다수 있다. 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539년)이나 癸未銘 금동삼존불상(563년), 辛卯銘 금동삼존불상(571년) 등이고, 광배만 전하는 상으로는 建興 5년명 금동광배(536년 또는 596년), 永康 7년명 금동광배(551년), 甲寅銘 금동광배(594년) 등이 있다. 이 상들은 모두 6세기 상으로 불, 보살상의 세부적인 형식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조각양식은 6세기 중엽경을 기준으로 전, 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6세기 전반적인 연가명 여래입상은 전형적인 북위 양식을 보여서 옷자락이 두툽고 깊이감 있는 층단형 옷주름으로 표현되었다. 이 상에서는 두, 신광도 화염의 윤곽선으로만 표현되고 다른 의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나머지 6세기 중엽 이후의 상들은 신묘명 금동삼존불상의 예처럼 동위양식을 반영하여서 불신의 양감이 증가하고 옷자락은 반대로 얇은 층단형 내지는 음각선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⁷ 그리고 이들의 광배는 두, 신광의 외곽에 당초문이나 보주문 등을 장식하여 보다 화려하다.

¹⁷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삼국시대불교조각』(1990), 도 9 참조.

이로 보면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상 및 석불입상은 모두 연가명 금동여래입상과 조각양식상 공통점을 보일 뿐 아니라, 삼국시대 보살상 중에서는 볼 수 없는 구슬 달린 목걸이와 정병을 들은 수인 등 고식 표현이 있어서, 삼국시대 불상중에서도 6세기 전반작으로 편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존상의 광배 의장은 고구려 불상으로 추정되는 건흥 5년명 금동광배와 비교되는데, 건흥명 광배의 편년도 최근에 부여 관북리에서 출토된 금동광배 등과 더불어 6세기 전반으로 올려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⁸

다음은 단독상으로 전하는 삼국시대 6세기 여래좌상과도 도상 및 양식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이 상들과는 수인 및 대좌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중리 삼존불상의 조각사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6세기의 단독 불좌상들은 수인이 선정인인 상이 많으며, 대좌는 사자좌 내지는 상현좌를 취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고식인 독섬출토 금동여래좌상은 인도식 사자좌이고,¹⁹ 전 황주출토 석조여래좌상은 수미좌가 표현된 상현좌이지만 사자의 표현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들은 평양 토성리출토 陶製範이나 군수리출토 납섬제여래좌상처럼 모두 단순한 상현좌 형식인데,²⁰ 이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선정인의 여래좌상이 긴 기간동안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중리 삼존상은 대좌의 형식이나 양식으로 보면 독섬출토 금동상과 전 황주출토 석상의 중간에 위치하는 고식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시대에 평양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하는 전 황주출토 석불좌상은 사암제 석불상으로 보이는데, 광배가 뒤에 독립된 형태로 있고 또한 수미좌의 형태나 불상 양식이 중국 북위대 불상의 특징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이다. 한편 이 상을 통해 고구려에서 석불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양식 특징이 비중리 석불상과 매우 흡사함으로, 비중리 석불상의 제작국을 고구려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으로 생각된다.²¹

비중리 삼존상과 같은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좌상은 충주 가금면 마애불의 여래좌상과 예산 사면석불의 남면 여래좌상이 있는데 그 예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小倉所藏 금동일광삼존불상이나 봉화, 영주지역의 마애삼존불상도 본존상이 좌불인 일광삼존불의 예이기는 하지만, 조각양식이 내려가는 7세기작들이어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¹⁸ 성윤길,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2013. 3), pp. 8-10.

¹⁹ 부여 신리출토 금동여래좌상은 인도식 사자대좌이나 사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²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삼국시대불교조각』, 도 5, 19 참조.

²¹ 김춘실, 「중국 산동성 불상과 삼국시대 불상」, 『미술사논단』 19(2004. 12), pp. 28-29. 이 상을 산동성 제성출토 석조 여래좌상과 비교하였다.

먼저 사자가 있어서 고식 대좌의 전통을 보이는 가금면 마애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도 24). 이 상은 충주 가금면 봉황리의 얇은 산중턱 바위 면에 고부조로 새겨져 있다. 한쪽 면에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좌상과 공양상이 있고, 바로 옆 면에 반가사유상을 주존으로 한 일군의 보살상들이 나란히 조각되어 있다. 여래좌상의 다리 아래 부분이 파손이 심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리 아래에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대좌를 표현하지 않은 듯하다. 오른쪽 무릎 부분에 밖을 향해 웅크리고 앉은 사자의 모습이 있어서 사자좌의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 옆으로 승녀가 아니고 일반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래좌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모습이 부조되어 특이한 구도를 보인다. 이 공양상의 모습도 신라의 단석산 마애불에 보이는 공양상의 모습과 다르고 오히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인물들과 흡사하여서, 이 마애불상 전체에 보이는 고구려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충주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서 중심이 되었던 지역으로 일찍이 475년에 국원경이 설치되었고, 또한 가금면 마애불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는 5세기로 추정되는 고구려비가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가금면 마애불상은 발견 당시부터 사자좌의 여래좌상이라고 하는 도상의 고졸성과 더불어 고구려와 연관지어 언급되었다.²² 그러나 이 상의 조각양식은 보살상의 몸에 굴곡이 드러나고 천의도 이중 U형의 후기적 특징을 보이므로, 조성시기는 600년경으로 추정되었는데, 따라서 이후 제작국이 신라설이 제기되었다.²³ 이처럼 가금면 마애불상은 비중리 석불상 보다는 시기가 다소 내려가는 도상과 양식 특징을 보이지만 분명히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상으로,



도 24 충주 가금면 봉황리 마애불상 중 여래좌상, 現高 61cm.



도 24-1 충주 가금면 봉황리 마애불상 중 여래좌상의 탁본

²² 정영호, 『中原鳳凰里磨崖半跏像과 佛,菩薩群』, 『고고미술』 146·147호(1980. 8), pp. 16-24; 김춘실(1990), 앞의 논문, pp. 11-12.

²³ 서영일, 『중원 봉황리 마애불·보살상군의 조성주체와 그 목적 연구』, 『문화사학』 18(2002), p. 102.

두 상은 서로 같은 조각사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의 충북지역 진출과 관련해 보면 고구려비가 있는 충주의 불상이 청주의 불상 보다는 조성시기가 올라가야 순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대인 것이 다소 의아하다. 그러나 가금면 마애불상이 위치한 곳은 헛골산의 가파른 중턱으로 그곳에 규모가 있는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개인적 성격의 불상이 후대에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산 사면석불은 규모가 큰 백제의 초기 석불이라는 점에서 비중리 석불상들과 비교되는 중요한 상이다(도 25). 그러나 우선 돌의 재질이 납석 계통이고 형태 또한 서로 다른데, 석주형의 돌에 가장 넓은 면을 정면으로 독존의 여래좌상이, 나머지 세 면에는 독존의 여래입상이 각기 부조되어 있다. 또한 각 면의 상은 거의 원각상에 가까운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불신의 자세나 대의 표현, 그리고 광배 장식 등에 어색함이 없고 장중하여서 조각수법이 뛰어난 상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여래좌상을 보면 불신은 길죽하고 볼륨감이 없는 편이고, 착의 형식은 대의 속에 편삼을 입은 새로운 형식으로 옷주름도 그다지 두텁지 않게 표현되었다.²⁴ 주형광배는 뾰족한 윗부분까지 모두 표현된 것이 비중리 상과 다르며, 두광은 원형으로 연화문과 선문, 그리고 당초문으로 장식되고 주위로 꼬리가 긴 화염문이 깊이감 있는 선으로 새겨져 있다. 대좌는 다리 아래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잔편이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는데, 옷자락이 대좌 앞면으로 보다 길게 늘어진 상현좌로 늘어진 옷주름의 끝단은 Ω 형인 수직 주름과 둥근 옷주름이 반복되고 있다.²⁵ 나머지 3면은 여래입상이므로 비중리 석불입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의를 가슴이 깊게 벌어지게 입어 속



도 25 예산 사면석불 남면 여래좌상, 백제 6세기 후반, 현고 120cm

²⁴ 예산 사면석불의 여래상 服制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문명대, 「백제사방불의 기원과 예산석주사방불상의 연구-사방불연구3-」, 『한국불교미술사론』(민족사, 1987), pp. 37-71(同著, 『관불과 고졸미』, pp. 259-282에 재수록); 大西修也, 「百濟佛再考-新發見の百濟石佛と 偏衫を着用した 服制 をめぐって-」, 『佛教藝術』 149호(1983), pp. 11-27; 김춘실(1990), 앞의 논문, pp. 3-8.

²⁵ 이러한 상현 주름 형태는 南朝 梁代 상인 사천성박물관소장 萬佛寺址出土 석조여래좌상의 상현 주름과 비교된다(四川博物院 成都文物考古研究所·四川大學 博物館 編, 『四川出土 南朝佛像造像』, 도판 17-1 참조).

에 내의와 둥근 띠매듭이 보이며, 허리 아래로 늘어지는 옷주름이 굽은 층단형으로 다소 무겁게 표현되었으나 몸 옆으로 뻗침은 없이 차분히 늘어지고 있다. 여래입상에는 커다란 원형 두광이 있는데 내부에 연판만 둘러지고 외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처럼 예산 사면석불의 여래좌상과 여래입상에서는 6세기 전반의 북위 불상의 특징은 전혀 볼 수 없고, 후대인 東魏 내지는 南朝인 梁 불상과의 친연성을 보여주며 조성시기는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나고 불신이나 광배, 모든 부분에서 백제 불상의 독자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상에 이어서 태안 마애불과 서산 마애불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백제에서 대형의 석불은 6세기 후반경부터 조성되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단독 여래좌상들과의 비교 고찰로 볼 때도 비중리 석불상의 조성시기를 6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가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중리의 석조삼존불상은 중국 북위대에도 5세기 말까지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므로, 이는 삼국시대 불교조각사에서 고구려 불상의 범주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백제 불상 중에는 그와같은 북위적 도상의 상이 없으며, 또한 신라 불상의 경우는 정확한 선정인 상도, 상현좌의 상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비중리 석불상들이 광배나 수인의 형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조각수법 또한 다소 둔중한 점은 이 상들이 우리나라에서 화강암 석불로 표현된 초기의 예이기도 하고 또는 다소 미숙한 지방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고구려비의 경우도 화강암으로 조성되고 크거나 서체 등에서 지방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는 도상뿐 아니라 조각수법면에서도 훌륭한 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6세기 전반 고구려의 중앙양식 불상을 복원해 보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매우 중요한 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중리사지 석불상은 삼국시대 불교조각사에서 대형 석불의 시원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상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삼국시대 석불의 조성은 석탑과 더불어 백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해 보게 한다. 현재 확실한 고구려 영역에서 석탑이나 석불이 전하는 예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靈塔寺에 7층석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²⁷ 또한 전 황주출토 석조여래좌상의 예로 보건대 석불의 조성이 고구려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이미 북위대 초반부터 砂巖 내지는 石灰石 계통의 대형 석불

²⁶ 주 19의 논문 외에 박영복, 『예산 백제사면석불의 고찰』,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1984), pp. 323-358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²⁷ 『三國遺事』塔像「高麗 靈塔寺」條, …此下有八面七級石塔 掘之果然 因立精舍 曰靈塔寺 以居之…

상이 조성되고 있으며,²⁸ 이는 분명히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비중리 석불상이 조성된 것이 아닌지 생각되고, 이로 보면 삼국시대 대형 석불의 조성은 그 연대가 매우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석불은 경주 남산 불곡의 마애여래좌상이나 인왕동 출토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는데 이들은 후대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비중리 석불상의 제작국은 결코 신라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경우도 석불의 조성이 6세기 후반 부터인데, 그보다 조성시기가 올라가는 석불상을 신라가 그것도 수도가 아닌 청주지역에서 조성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로 볼 때, 비중리사지 석불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인 동시에, 현재는 없어진 고구려의 초기 불상의 한 예를 복원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IV.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과의 형식 및 양식 비교를 통한 조성국 파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비중리사지 석조불상의 양식 고찰의 귀결점은 결국 조성국의 파악임을 알 수 있다. 불상의 편년 뿐 아니라 조성국의 확인을 통해서 삼국시대 조각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성국의 파악은 이 상이 위치하고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의 서쪽지역에서 6세기대 삼국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역사적 상황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므로 중요하다.

그동안 청주지역의 6세기 역사적 상황은 주로 관련된 문헌 자료와 이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산성 내지는 고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되어 왔다.²⁹ 이에 비해 불교

²⁸ 石松日奈子, 앞의 책, pp. 213-215. 북위 平城時代 석조상은 하북이나 섬서에 예가 많고, 洛陽時代에는 하남이나 산둥 지역에서도 석조상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섬서나 산서에서는 砂巖 계통의 석불상이 조성된 반면 하남이나 산둥에서는 石灰石 계통의 석불상이 조성되었다 한다. 이러한 재질의 차이에 의해 섬서나 산서의 석불상은 부드러운 양감이 표현되고 있고, 하남이나 산둥의 석불상은 선각이나 낮은 부조를 활용한 섬세한 표현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²⁹ 특히 청주지역과 관련된 당시 삼국의 상황을 논한 글로는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학연문화사, 1999); 양기석, 앞의 논문; 김영관,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선사와 고대』 25(2006), pp. 657-674;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 연구』 58(2010.6), pp. 103-132 등이 있다.



도 26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 중 삼존불상, 7세기 전반, 높이 약 3m

유적은 비중리 석불상 외에는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감이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비중리 석불상의 인근 지역인 증평군 남하리사지에서 삼국시대 마애불상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남하리사지 마애불상의 형식과 양식을 비중리 석불상들과 비교 고찰하여 삼국시대 청주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하리사지는 증평읍 남하리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잡은 옛 절터로, 유적이 자리잡은 위치나 마애불의 상태 등이 매우 시대가 올라가는 불적임을 보여준다. 커다란 자연 암반이 어우러져 석실형태를 이루었는데 바위면 3곳에 불상이 5구 새겨져 있고, 앞쪽에 한쪽 옆으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3층석탑이 서 있다(도 2). 이 유적은 1993년에 충청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기와, 토기, 자기편이 출토되었다.³⁰ 고려시대에 이곳에 철을 생산했던 염곡소가 있었다고 하는 점과 더불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절이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위의 넓은 앞면에 삼존불입상이 새겨져 있는데, 본존상의 높이가 약 3m 정도인 비교적 큰 마애불이다(도 26). 본존상 대좌 바로 아래에는 특이하게도 물이 고이는 샘이 있다. 바위면을 약간 감춰된 파고 삼존상의 외곽을 비교적 고부조로 새겼으나 옷주름선은 선각이고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삼존불의 전체 구성이나 불, 보살상의 세부 표현이 삼국시대의 특징을 보

³⁰ 충청전문대학 박물관, 『증평 남하리사지 지표조사 보고서』(충청북도 증평출장소, 1994).

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암반 뒷면은 좁은 공간을 두고 석벽이 잇대어 있어서 마치 이곳이 석실 사원 처럼 보이는데 규모는 작지만 마치 경주 단석산 불적을 보는 듯 하다. 암반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우선 확인되는 글자는 ‘誠人愛’ 등과 더불어 영어 글자도 같이 보여서 오래된 명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¹

본존상은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입상으로 어깨가 넓어 장대한 편이다. 두손을 가슴까지 높이 올리고 있어 고식의 특징을 보인다. 머리는 소발이고 육계가 동그랗게 솟아 있는데 위로 원형의 두광선이 보인다. 얼굴은 둥근데 귀의 표현이 없고 상호는 마모되어 코만 큼직하게 보인다. 대의는 통견으로 옷주름선을 깊은 음각선으로 표현하여 약간의 부피감을 주고 있는데, 앞자락과 내의의 선은 이중의 선으로 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치마 밑으로 양발이 표현되고 있으나 대좌 부분이 파손되어 세부 묘사는 불분명하다.

양 옆의 협시보살상들은 세부 표현이 더욱 안보이는데, 서로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머리에 둥근 두광이 있고 얼굴은 가름한데 상호가 희미하다. 양 어깨와 몸 옆으로 천의자락 뻗치고 있는 표현이 있어 6세기 보살상의 특징이 일부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수인이나 허리 아래로는 마모되어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좌협시보살상도 둥근 두광이 있고 얼굴은 가름한데 상호나 보관의 표현은 희미하다. 어깨에 뻗치는 천의자락은 없고 다리의 윤곽만 동글게 보인다. 치마 밑으로 여래상의 경우처럼 양 발이 표현되고 있으나 역시 대좌 부분이 파손되어 세부는 알 수 없다.

암반의 왼쪽 측면에는 편단우견의 착의 법을 한 독존의 여래입상이 부조되어 있다(도 27). 이 상의 높이 또한 2.53m이어서 비교적 큰 상이다. 얼굴이 둥근 편이나 상호는 마모되어 불분명하다. 편단우견의 대의는 가슴의 선만 이중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어깨 쪽으로 치켜



도 27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 중 여래입상, 7세기 전반, 높이 2.53m

³¹ 위의 책, p. 51. 새겨진 글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28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 중 반가사유상.
7세기 전반, 높이 2.53m

올라간 옷주름선은 모두 단선의 음각선이다. 수인은 왼손은 가슴 부근에서 들고 오른팔은 내려서 배부분에 대고 있는데 지물은 확인이 안된다. 이러한 독존의 편단우견의 여래입상은 7세기대에 특히 고신라에서만 유행한 형식 이어서 이 마애불이 신라와 연관된 불적임을 분명히 해 준다.³²

한편 삼존불이 새겨진 정면의 오른쪽으로 또 다른 바위가 인접해 있는데, 불상을 바라보는 면에 선각으로 독존 반가사유상이 희미하게 조각되어 있다(도 28).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앉은 측면 모습의 반가상으로 세부가 많이 마모되었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확인된다. 반가사유상의 전체 높이도 2.53m로 비교적 크게 조각되었다. 머리 위로 나뭇잎이 늘어진 듯 보이고, 반가상의 머리 부분은 보관을 쓴 옆 얼굴이 보인다. 아래 쪽으로 반가

한 무릎이 커다랗게 표현되고 그 위에 사유하고 있는 오른팔을 꺾고 있다. 무릎 이하 대좌의 표현은 불분명하고 단지 아래쪽에 넓은 대좌의 연판이 6엽 확인된다. 전체 모습이 수하사유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남하리사지에 조성된 마애불상들은 이처럼 조각수법은 정교한 편은 아니나, 단석산 같은 석굴사원의 분위기와 함께 삼존불상과 독존의 편단우견 여래입상, 그리고 반가사유상까지 도상 특징이나 상의 조합 모든 면에서 삼국시대 7세기 신라의 불상들과 깊은 친연성을 보여서 주목된다. 따라서 조성시기는 7세기 전반 정도로 추정되고, 당시 이 지역에 진출해 있던 신라 세력에 의해 조성된 상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면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은 충청지역에 위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삼국시대 불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주지역에서 확실한 신라의 불적이 발견된 것은 이제까지 비중리 석불상만을 중심으로 언급되던 삼국시대 청주지역의 상황을 보다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게

³² 김춘실, 「삼국시대의 금동약사여래입상 연구」, 『미술자료』 36(1985.6), pp. 1-24.

해 주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남하리사지 마애불상이 삼국시대 7세기의 신라 불교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상은 신라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된 결과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정은 신라의 북진의 과정을 살펴볼 때도 합당하게 생각된다. 역사학계에서는 신라가 청주지역을 완전히 세력권에 넣는 시기는 대체로 진흥왕대인 550년경이고 이후로 이 지역을 빼앗긴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청주지역을 차지한 이후 6세기 후반의 시기는 지속적으로 영역을 위로 넓히기 위해 북쪽 지역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이다.³³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비중리 석불상과 같은 전혀 신라 불상 중에서는 볼 수 없는 고식의 상을 방금 차지한 지역에서 조성하였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³⁴

실제로 신라의 불교미술은 황룡사의 창건을 기점으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현존하는 신라의 6세기 불상은 삼국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적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상의 조각수법도 매우 치졸하여서 당시 신라의 불교문화 수준이 가장 낮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과의 직접 교류도 진흥왕대에 시작하여 진평왕대가 되어야 비로소 본격화되기 때문에, 6세기의 신라 불상은 중국상과 직접 연결되기 보다는 고구려나 백제의 불상을 모방하되 그 솜씨도 매우 낮은 상이 대부분이다. 수도인 경주에서조차 불상의 조성이 활발해지고 또한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중국불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게 되는 것은 7세기 전반 부터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라가 지방인 청주에서 사찰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는 7세기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증평 남하리사지의 마애불상은 삼국시대 청주지역의 신라 불상으로서 매우 합당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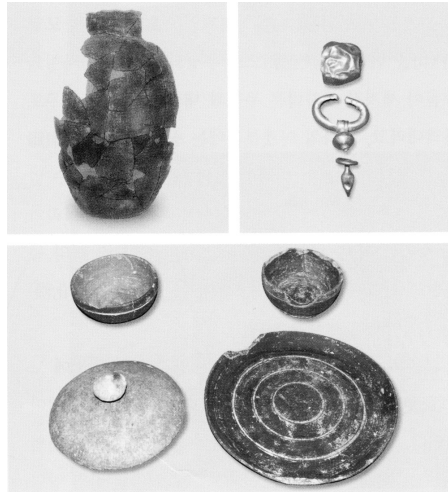
이상의 남하리사지 불상의 고찰로 볼 때도 비중리 석불상은 고구려에서 조성한 불상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상의 양식과 조성국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합당한 설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 상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고구려에 의해 조성되었을까? 먼저 비중리사지 석불상이 위치한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비중리 석불상이 위치한 곳은 현재 청주의 동편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산성과 같은 고지대가 아니라 평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곳은 뒤로 상당산성에서 이어져 오는 높은 산이 보이고 주변으로 넓은

³³ 서영일, 앞의 책;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³⁴ 서영일(1997), 앞의 논문. 신라의 5세기 이후 북진로가 삼년산성-구라산성-토성리산성-함미성-이성산성-농교-도당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비중리 석불상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라의 불상으로 보고 있다.

농토가 펼쳐지는 지금도 주변 환경이 거주하기에 매우 좋은 농촌 마을이다. 이로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비중리 석조삼존불상은 당시에 살기 좋은 곳에 건립된 평지 사찰의 주존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매우 의도적인 사찰의 건립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게 한다. 즉 이 절은 임시적 성격의 사찰이 아니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실제 역사상 어느 시기에 가능할까? 충북지역은 장수왕의 남하정책 이후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소속국가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당시 유물중에는 국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다. 먼저 충북지역에서 고구려의 남하 과정에 중심이 됐던 지역은 충주이다.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고구려비가 발견되어 5세기 후반의 정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충북의 서쪽 지역인 청주로 진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관련된 기록이나 유적이 많지 않아서 논의가 적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청원 부용면 남성골산성³⁵ 및 대전 월평동산성³⁶ 유적에서 고구려 성책과 유물이 발견된 이후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남하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도 29).³⁷ 간략히 개관하면 고구려가 475년 한성 함락 이후 곧바로 경기도 지역을 거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한성 함락 이후에도 이 지역은 잠정적으로 백제에 의해 세력이 유지되다가 529년 오곡전투에서 백제가 대패한 이후 고구려가 이곳



도 29 청주 부용면 부강리 남성골산성 출토 유물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³⁵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 유적』 (2004), pp. 296-297. 청원 부강에 위치한 남성골 유적은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구려 성책유적으로, 고구려식 토기와 귀걸이, 철기류, 그리고 토기 굽던 가마가 발견되었다. 출토된 토기와 철기류들은 한강유역의 고구려 유적과 집안, 환인 지역의 고구려유적 출토 유물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사용시기는 5세기 후반에 집중되며, 하한연대는 6세기 전반까지로 추정하였다.

³⁶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pp. 304-307. 이곳에서는 26개체분의 고구려 토기가 발견되었다.

³⁷ 장창은, 앞의 책, pp. 111-155. 『5세기 후반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영역 변천』 장에서 이 분야의 연구사 개관과 더불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으로 내려와서 550년 정도까지 지배했다는 의견 등이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온 방향이 충주에서 서진해서 온 것이 아닌가 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³⁸

이에 그동안의 역사학과 고고학의 연구사를 참고하고 아울러 앞에서 고찰한 비중리 석불상의 양식 특징 및 조성시기, 그리고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불상 조성의 합당한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위의 연구사를 보면 고구려가 언제 충북의 서쪽지역에 왔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지만, 남성골산성의 존재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는 확실히 고구려가 청주의 서쪽지역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고구려가 충주를 점령하고 고구려비를 건립하였는데,³⁹ 이후 5세기 말에 고구려가 충북의 서쪽 지역으로 진출한 기록이 있다. 484년 毋山城(충북 진천군 진천읍) 전투에서 나·제 동맹에 패했다는 기록이 있고,⁴⁰ 반면에 494년 문자명왕 3년 7월에는 薩水原(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신라군과 싸워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또한 비록 적은 예기는 하지만 충북의 서쪽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로 1963년에 진천 회죽리에서 발견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태환식 귀걸이와 1976년 청원 강외면 상봉리에서 발견된 5세기 후반의 태환식 귀걸이, 그리고 1996년 진천 대모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흑색토기 1점 등이 있다.⁴² 이러한 문헌 자료와 유물들은 고구려가 충주를 차지한 다음 충북의 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⁴³ 한편 고구려는 이미 5세기 말 내지는 6세기 전반에 확실히 청주의 서쪽 외곽인 남성골산성에 자리잡고 있었다. 남성골 산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고 주거와 생산기능 까지 갖춘 고구려 남진에 있어 정착의 주요 거점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도 비중리사지 석불상은 고구려가 국원을 차지한 이후 이와 같은 서진의 과정 내지는 남성골 산성에서 동진의 과정 속에서 조성된 석불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불상의 조성시기로 추정되는 6세기 전반은 아직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하지 못한 시기이고, 백제의 佛事는 이곳 보다는 새로운 수도인 공주나 부여 쪽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

³⁸ 박현숙, 앞의 논문, p.116.

³⁹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5세기 초, 중, 후반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장창은, 앞의 책, pp. 357-419. 보론「충주 고구려비 연구의 현 단계」장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⁴⁰ 『三國史記』「新羅本紀」照知麻立于 6년조. 서영일은 당시 고구려가 죽령로나 계림령 방면에 비해 청주 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한 것은 신라의 추풍령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영일, 앞의 논문, p. 98)

⁴¹ 『三國史記』「高句麗本紀」文咨明王 3년조.

⁴² 김영관, 앞의 논문, pp. 662-665.

⁴³ 장창은, 앞의 책, p.137. 살수원의 전투를 담당한 군사가 당시 상황으로 보아 국원 즉 충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이다. 비중리 석불상은 충주에서 출발할 때 청주로 막 들어오는 서쪽주변에 있다. 그리고 위치 상으로는 남성골산성에 보다 가깝다. 이로 보면 비중리 석불상은 고구려가 충북지역에서 충주와 남성골 산성에 걸쳐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던 시기에 조성된 상이 아닌가 한다. 충북지역에서 발견 되는 고구려비를 필두로 6세기 고구려 유물인 건흥명 금동광배, 태환식 귀걸이들, 남성골 유적, 그리고 비중리 석불상과 봉황리 마애불상까지 이들은 고구려가 비교적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시기의 경영과 연결된 맥락 속의 유적과 유물이 아닌가 한다. 특히 불상 관련 자료들을 보면 사자좌의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의 도상이나 광배의 양식 면에서 깊은 공통점을 보인다.

그리고 비중리사지 석불상이 지금도 풍광이 좋고 들판이 넓어 생활하기에 매우 훌륭한 곳에 세워진 상황은 아마도 당시 국원과 남성골 산성을 양 옆에 두고 이곳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데 있지 않나 한다. 따라서 비중리 석불상은 고구려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또는 앞으로의 이곳에 대한 경영의 긴 안목으로 조성한 불상이 아닌가 하고, 그러한 시기는 역시 고구려가 아직 이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6세기 전반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면 비중리 석불상이 위치한 곳은 고구려가 계획적으로 마련한 또 다른 남방 진출의 거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로써 고구려의 남방 진출은 6세기 전반에 충주와 청주 양 지역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의 고찰로 보면 비중리사지 석불상들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인 동시에, 현재는 없어진 고구려의 초기 불상의 한 예를 복원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는 고구려의 불상들은 모두 소형의 금동불이나 소조상 뿐이어서 법당에 봉안되었던 주불상을 상상해 보기에는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현존의 고구려 좌불상들은 모두 선정인의 상 뿐인데, 비중리 삼존상을 위시하여 고구려와 연관을 보이는 충주 가금면 마애불상은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이다.⁴⁴ 이로 보면 시무외 여

⁴⁴ 이외에 옛 말해 上京 龍泉府址인 만주 흑룡강성 寧安縣 東京城鎮에서 출토된 석조이불명좌상도 거론될 수 있다. 이 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어 다소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고구려불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된다(駒井和愛, 『渤海の佛像 - 特に二佛并坐石像について』, 『中國考古學研究』(世界社, 1952). 이와 비슷한 모습의 상이 만주 길림성 半拉城 土城址에서도 출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半拉城 출토 상을 6세기 후기 7세기 초기의 고구려불로 추정하고 있다(三上次男, 『半拉城出土の二佛并坐像とその歴史的意義』, 『朝鮮學報』49(1968), pp. 333-348).



도 30 영주시 가흥동 석조삼존불상, 7세기 중엽

원인 여래좌상 형식도 고구려에서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도 북부 지역인 봉화, 영주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3구의 마애삼존상들이 주목된다(도 30). 이 상들은 경주의 상들과 달리 고식인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는 삼존상들이어서 특이한 예들로 언급되고 있다. 따

라서 이 상들의 조성시기를 올려서 파악한 경우도 있었지만, 광배나 대좌에 후대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제 조성시기는 삼국시대 말인 7세기 중엽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일찍이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던 관계로 불교가 일찍 전파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 속수사지에서는 신라 불상 중에서 가장 고식인 6세기 보살상이 발견된 바 있다.⁴⁵ 따라서 봉화, 영주지역의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의 삼존상도 이러한 고구려적 불교의 전통 속에서 조성된 상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더 멀리 일본 飛鳥時代 대표적 불상양식인 止利樣式的 성립에 미친 고구려 불상의 영향도 생각하게 된다. 일본 飛鳥時代의 대표적 불상인 法隆寺金堂釋迦三尊像(623년)을 위시하여 止利樣式的 불상들 중에는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는 삼존상이 다수 있다(도 13). 止利樣式은 중국이나 한반도의 6세기 전반 고식양식과 이후 주로 백제의 7세기 전반까지의 새로운 양식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양식으로 언급되고 있다.⁴⁶ 이 6세기 전반 고식양식은 중국의 北魏나 梁 불상, 또는 고구려, 백제의 6세기 불상들과 다각도로 연관지어 언급

⁴⁵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삼국시대불교조각』, 도 62.

⁴⁶ 松原三郎, 「飛鳥白鳳佛と朝鮮三國期の佛像 -飛鳥白鳳佛原流考として-」, 『美術史』 68(1968), pp. 144-163; 水野敬三郎, 「釋迦三尊と止利佛師」, 『法隆寺金堂釋迦三尊』(岩波書店, 1979); 大西修也, 『日韓古代彫刻史論』(中國書店, 2002); 강우방,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고 -동위양식계열의 6세기 고구려·백제·고신라의 불상조각양식과 日本 止利樣式的 신해석-」, 『미술자료』 30:31(1982.6.12)(同著,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pp. 55-101에 재수록); 김리나, 「삼국시대의 봉지보주형 보살입상 연구 -백제와 일본의 상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37(1985.12), pp. 1-41(同著,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pp. 85-143에 재수록); 김춘실(1990), 앞의 논문; 광동석, 「고구려 조각의 대일교섭에 관한 연구」,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1996), pp. 129-169; 김춘실, 「백제 6세기 후반 납석제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50·251(2006.9), pp. 5-38.

되어 왔는데, 앞에서의 비중리 삼존상의 고찰로 보건대 보다 직접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일본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 불상이 직접 전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는 일광삼존상은 백제 보다는 고구려와 깊은 연관을 보여주는 도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止利樣式 불상에 미친 고구려 불상의 영향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고,⁴⁷ 또한 같은 飛鳥時代 유물인 玉虫廚子の 대좌에 고구려 계통 연화문이 표현된 것을 지적한 연구 등이 있어 주목된다.⁴⁸ 그 배경으로 聖德太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승 惠慈 뿐 아니라 많은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다수 있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⁴⁹ 그런데 法隆寺 釋迦三尊像의 대좌는 수미좌형 대좌에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진 상현좌로 사자의 표현은 없다. 또한 보살상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고식 표현은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중리 삼존불상 보다는 다소 조성시기가 내려가는 상을 모델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보면 현존의 자료가 거의 없어서 그동안 심도있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6세기 동아시아 역사에서 고구려의 영향은 생각보다 방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비중리 삼존불상은 그러한 상황을 복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주제어(key words)**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삼존불좌상(淸州 飛中里寺址 石造三尊佛坐像, the Stone Buddha Triad at Bijung-ri Temple Site, Cheongju),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施無畏 與願印 如來坐像, seated Buddha image with *abhaya* and *varada mudrās*),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曾坪 南下里寺址 磨崖佛像, the Buddhist Images Carved on Rock Surface at Namha-ri Temple Site, Jeungpyeong), 석불상(石佛像, Stone Buddhist Images), 고구려(高句麗, Goguryeo)

■ 투고일 2016년 6월 3일 | 심사개시일 2016년 6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10일 ■

⁴⁷ 강우방, 앞의 논문; 광동석, 앞의 논문.

⁴⁸ 上原和, 「고구려 회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1996), pp. 196-244.

⁴⁹ 광동석, 앞 논문. pp. 164-168.

참고문헌

1. 사료 및 도록

- 『三國史記』 『新羅本紀』 『高句麗本紀』
『三國遺事』 塔像 『高麗靈塔寺』 條,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삼국시대불교조각』, 199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고대불교조각대전』, 2015.

2. 단행본 및 보고서

- 강우방,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_____, 『한국고대 불교조각 비교연구』, 문예출판사, 2003.
문명대, 『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8.
황수영, 『국보』 4, 석불, 예경산업사, 1985.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2006.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원 남성곡 고구려 유적』, 2004.
충청대학교 박물관, 『증평 남하리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1994.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청원 북일면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지표조사 및 간이발굴조사보고서』, 청원군, 1991.
_____, 『비중리일광삼존불 복원조사 및 원위치탐색조사보고서』, 청원군, 1992.

3. 한국어 논문

- 강우방,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고-동위양식계열의 6세기 고구려·백제·고신라의 불상조각 양식과 日本止利樣式的 新 해석」, 『미술자료』 30·31, 1982. 6. 12, (同著,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pp. 55-101에 재수록)

- 곽동석, 「고구려 조각의 대외교섭에 관한 연구」,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6, pp. 129-169.
- 김리나, 「삼국시대의 봉지보주형 보살입상 연구-백제와 일본의 상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37, 1985. 12, pp. 1-41(同著,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pp. 85-143에 재수록)
- _____, 「고구려 불교조각양식의 전개와 중국 불교조각」,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6, pp. 75-126 (同著, 『한국고대 불교조각 비교연구』, 문예출판사, 2003, pp. 64-69에 재수록)
- 김영관,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선사와 고대』 25, 2006, pp. 657-674.
- 김춘실, 「삼국시대의 금동약사여래입상 연구」, 『미술자료』 36, 1985. 6, pp. 1-24.
- _____, 「삼국시대 시무의 여원인 여래좌상고」, 『미술사연구』 4, 1990, pp. 1-39.
- _____, 「중국 산동성 불상과 삼국시대 불상」, 『미술사논단』 19, 2004. 12, pp. 28-29.
- _____, 「백제 6세기 후반 납석제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50·251, 2006. 9, pp. 5-38.
- 문명대, 「청원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1982, pp. 257-274(同著, 『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pp. 394-408에 재수록)
- _____, 「백제사방불의 기원과 예산석주사방불상의 연구 - 사방불연구3 -」, 『한국불교미술사론』, 민족사, 1987, pp. 37-71(同著, 『관불과 고졸미』, pp. 259-282에 재수록)
- 박영복, 「예산 백제사면석불의 고찰」,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문총』, 1984, pp. 323-358.
-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 연구』 58, 2010. 6, pp. 103-132.
- 上原和, 「고구려 회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6, pp. 196-244.
- 서영일, 「6세기 신라의 북진로와 청원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사학지』 30, 1997, pp. 89-115.
- _____, 「중원 봉황리 마애불·보살상군의 조성주체와 그 목적 연구」, 『문화사학』 18, 2002, pp. 89-104.
- 성운길,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 2013. 3, pp. 5-40.
-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pp. 13-56.
- 정영호, 「청원 비중리 삼존석불」,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1980. 8월 1일자.
- _____, 「중원봉황리마애반가상과 불·보살군」, 『고고미술』 146·147호, 1980. 8, pp. 16-24.

4. 일본어 단행본 및 논문

-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金銅佛』, 1987.
- 山口縣立萩美術館·浦上記念館 特別展, 『佛教美術の黎明, 山東省 石佛展』, 2008.
- 大西修也, 『日韓古代彫刻史論』, 中國書店, 2002.
- 梅原末治·藤田亮策 編, 『朝鮮古文化綜鑑』 4(고구려편).
- 石松日奈子,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 Brüke, 2005.
-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吉村弘文館, 1995.
- 逸見梅榮, 『佛像の形式』, 東出版, 1975.

大西修也,「百濟佛再考—新發見の百濟石佛と偏衫を着用した服制をめぐって」,『佛教藝術』149,1983, pp. 11-27.

松原三郎,「飛鳥白鳳佛と朝鮮三國期の佛像—飛鳥白鳳佛原流考として—」,『美術史』68,1968, pp. 144-163.

水野敬三郎,「釋迦三尊と止利佛師」,『法隆寺金堂釋迦三尊』,岩波書店,1979.

5. 중국어 단행본

文物出版社,『雲岡石窟』,『龍門石窟』,1991.

四川博物院 成都文物考古研究所·四川大學博物館編,『四川出土南朝佛像造像』,中華書局,2013.

西安碑林博物館編,『西安碑林博物館』,陝西人民出版社,2000.

_____,『西安碑林佛教造像藝術』,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0.

青州市博物館編,『龍興寺』,山東美術出版社,1999.

국문초록

청주 비중리사지에서 전하는 석불상들은 발견 당시부터 고구려 불상양식을 보이는 상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상의 편년이 6세기 중엽 내지는 후반으로 추정되면서, 이 지역이 당시 신라에 속했던 관계로 고구려양식으로 제작된 신라불상, 또는 삼국 양식이 혼재된 불상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만 상이 많이 파괴된 관계로 이후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석불상들은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여전히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 이 석불의 인근한 곳인 증평의 남하리사지에서 또 다른 삼국시대 마애불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비중리 석불상만을 중심으로 언급되던 삼국시대 청주지역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비중리사지 석불상은 6세기 청주지역에서 삼국의 대치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가장 고식을 보이는 삼국시대 석불이므로 한국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중리 석불상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형식 및 양식고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비중리 석불상들을 세부로 나누어 도상 및 조각양식상 특징을 고찰하였고, 이후는 이들을 아우르는 전체 모습으로 다시 보다 폭 넓게 중국 및 삼국시대 불상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먼저 석조삼존불상은 석불로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특히 도상과 양식면에서 현존하는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 독섬출토 금동불좌상이나 장천리 1호분 예불도의 불좌상 다음으로 올라가는 상으로 판단되었다. 즉 시무외 여원인의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면서 5세기로 소급되는 須彌座의 사자좌인 대좌 양식, 그리고 보살상의 6세기적 양식 특징에 덧붙여 보다 고식인 작은 구슬이 달린 목걸이와 정병을 들고 있는 수인이 표현된 점, 그리고 고식의 원형광과 화불의 양식 등으로 볼 때 현존하는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는 비교 예가 없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北魏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래입상의 경우는 그와 같은 고식 상이기는 하나 조각수법이 너무 둔중한 감을 보여서, 혹시 뒤이어 이 지역에 들어온 신라에 의해 조성된 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따라서 석조삼존불상의 경우는 충분히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될 수 있으며, 또한 그와같은 양식은 지금 현존의 예는 없지만 고구려 불상에서만 가능한 특징이므로 조성 국가도 고구려로 판단되었다. 이는 상의 양식과 조성국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합당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비중리 불상의 모델이 되었던 상은 중국상들과 비교해 볼 때 삼국시대 고구려 금동불들과 많은 연관이 언급되었던 山東地

域 불상 보다는 북위의 중앙지역 불상들과 깊은 연관을 보이는 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중리 석불상과 인근한 곳에서 전하는 남하리사지 마애불상은 삼존불과 독존의 편단우견 여래입상, 그리고 반카사유상 등이 새겨져서 7세기 신라의 불적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신라는 6세기에 경주에서조차 불교미술이 미흡했으므로, 신라의 북진과 연관된 청주지역의 불적은 이곳 남하리사지 불상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남하리사지 불상과의 비교 고찰로 볼 때도 비중리 석불상은 고구려에서 조성한 불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중리 석불상이 조성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은 상의 편년 고찰에서 도출된 6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성된 상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로 보면 비중리사지 석불상들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인 동시에, 현재는 없어진 고구려의 초기 불상의 한 예를 복원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의 고구려 좌불상들은 모두 선정인의 상 뿐인데, 비중리 삼존상을 위시하여 고구려와 연관을 보이는 충주 가금면 마애불상은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이다. 이로 보면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 형식도 고구려에서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던 경상도 북부지역인 봉화, 영주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마애삼존상들의 고구려와의 관련이 주목된다.

한편 더 멀리 일본 飛鳥時代 대표적 불상양식인 止利樣式의 성립에 미친 고구려 불상의 영향도 생각하게 된다. 일본 飛鳥時代의 대표적 불상인 法隆寺 金堂 釋迦三尊像(623년)을 위시하여 止利樣式의 불상들 중에는 시무외 여원인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는 삼존상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의 배경으로는 聖德太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승 惠慈 뿐 아니라 많은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다수 있었던 점이 지적된다.

A Study on the Stone Buddha Statues from Bijung-ri Temple Site, Cheongju: Focusing on Country of Origin

Kim, Choon sil *

Ever since their discovery, the stone Buddha statues at the Bijung-ri temple site in Cheongju were known as the Goguryeo style statues. However, as they were dated to the mid or late sixth century, various opinions have been suggested. Some propose that the statues are the works of Silla made in the Goguryeo style, mostly because the region belonged to the Silla during the period. Others think that various styles of the Three Kingdoms coexist in the statues. Since the statues are severely damaged, further study has not taken place with limited interest of the researchers. However, these statues are still important works as the production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recent discovery of another Buddhist image on the rock surface of the Namha-ri temple site in Jeungpyeong near Bijung-ri makes it possible to consider the artistic trends in Cheongju reg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a more profound way.

The Bijung-ri statues are important references with which we can shed new light on how the Three Kingdoms were active in the area of Cheongju during the sixth century. At the same time, they display the most archaic style, which makes them even more important in the study of Buddhist art history in Korea.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al and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4.

stylistic analysis of the statues, and places the Bijung-ri statues in a larger context in order to compare them with other images made in contemporary China and the Three Kingdom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ijung-ri triad is relatively large in size, and that it is the second oldest statues in Korea after the gilt bronze Buddha statue from Ttukseom or the painted Buddha image in Tomb No. 1 at Jangcheon-ri in terms of iconography and style. In other words, several features of the statues lead us to conclude that they fully embrace the Northern Wei style, which flourished during the end of the fifth or early sixth centuries: the combination of a seated Buddha image with *abhaya* and *varada mudrās* as a central figure and the Mount Sumeru type throne with lions which dates to the fifth century; the addition of the rather archaic style of a necklace with a small pendant and a water bottle to the bodhisattva image of the sixth-century fashion; the archaic style of a round halo with small manifested Buddhas on it. In the case of the standing Buddha statue, it also displays the archaic style in the same way. However, the sculpting technique looks too dull to the extent that the piece is regarded to have been made by Silla, who later conquered the region.

Accordingly, the stone triad can be dated to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and produced by Goguryeo, as the archaic styles displayed by the statues were available only in the Goguryeo during the period, although no comparable examples exist. I think it is a reasonable conclusion because the style of the statue corresponds to the country of origin. Moreover, as for the antecedent Chinese statues that might have provided a model for the Bijung-ri statues, I propose that they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statues of the central region of the Northern Wei than those in the Shandong Province, with which scholars have compared Goguryeo gilt-bronze statues.

Meanwhile, the Namha-ri images have been believed to be the works of the seventh-century Silla, as they are composed of a Buddha image with his right shoulder uncovered and the Pensive Bodhisattva images. However, Buddhist art of the Silla during the sixth century was not conspicuous enough even in its capital, Gyeongju, and thus it is more reasonable to see that Buddhist works of Cheongju region pertinent to the Silla's northern expansion is the Namha-ri images. A comparison with the Namha-ri images also leads me to think that the Bijung-ri statues were created by Goguryeo. As for the historical context, I propose that the Bijung-ri images were made during the period when Goguryeo ruled the region in a rather

peaceful mode in the sixth century, a period which is yielded from the formal and stylistic analysis of the statues.

All the analyses confirm that the Bijung-ri images are of great value in Korean Buddhist art history. They are the oldest extant Buddha stone statues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help us to reconstruct a type of Goguryeo statues of early period, which no longer exists. Whereas all the extant seated Buddha statues of Goguryeo display meditation *mudrā*, Bijung-ri statues, along with the rock-carved Buddha image from Gageum-myeon in Chungju which is related to Goguryeo, are all with *abhaya* and *varada mudrās*. This leads to the assumption that the latter type was also popular in Goguryeo. Related to this point, it is noted that that the rock-carved Buddha imag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Gyeongsang Province such as those in Bonghwa and Youngju areas, the places upon which Goguryeo exerted its influence, could have been linked to Goguryeo.

Furthermore, one should also consider the influence of Goguryeo statu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ri style,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Buddhist art styles in the Asuka Japan. It is because many of the Tori style triads display the *abhaya* and *varada mudrās*, including the Shaka Triad (623) in the Golden Hall of Hōryūji temple. As for the background of mutual relationship, the great deal of exchange of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presence of Hyeja, a Buddhist master from Goguryeo who served as the mentor of Prince Shōtoku can be considered.